국내 기업 e-비즈니스 수준 꾸준히 향상

" 2006년 인덱스 50.1,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가 관건 "

산업맥박

2006년 e-비즈니스 전체평균 인덱스는 50.1로 전년대 비 2.8p 상승했으며 국내기업의 e비즈니스 수준은 꾸준 히 향상되었으며 제조업이든 비제조업이든 공정의 자동 화 등 IT기술의 수요가 많은 업종은 지속적으로 e비즈 니스 활용 수준이 진전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또한 대중소기업 e-비즈니스 수준의 격차는 여전하며 향후에는 중소기업의 e-비즈니스 수준을 높이는데 주 력해야한다고 조사되었다.

산업자원부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1,10(수) 코엑스에서 「디지털미래전략세미나2007」을 개최하면서 국내 기업의 e-비즈니스 활용 수준을 조사한 2006년 e-비즈니스 인덱 스(KEBIX: Korea E-Business IndeX)를 발표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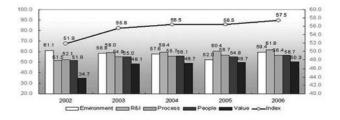
※ e-비즈니스 인텍스 : 국내기업의 e-비즈니스 현황과 수 준을 알아보기 위해 e-비즈니스 관련 5개 분야(환경, 자 원과 인프라, 프로세스, 인력, 가치)를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산정한 종합지수

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006년 e-비즈니스 인덱스는 50.1로 전년(47.3) 대비 2.8p 상승했으며, 5개 분야 모두 고르게 상승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

이번 조사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.

- 기업의 e-비즈니스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
 는 e비즈니스 환경 분야의 지수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
 상승
- ※ 환경(6.3p↑), 자원과 인프라(2.1p↑), 프로세스(2.7p ↑), 인력(3.1p↑), 가치(2.9p↑)

〈 02~' 06년 인덱스 추이(조사에 연속적으로 참여한 134 개 기업대상)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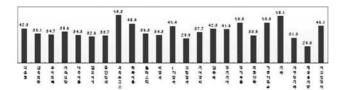
- 국내기업의 e-비즈니스 성장단계를 4단계로 구분해보
 면, 대기업은 3단계인 '기업간통합'의 높은 수준에 이
 르렀으며 중소기업은 1단계와 2단계 사이의 중간수준으
 로 조사되었다.
 - ※ e-비즈니스 성장단계 : 기능별효율단계(기능별 인프 라구축) → 기업내통합(기업내 e-비즈니스 확산) → 기업간통합단계(기업간 e-비즈니스 활용) → 성숙기 (기업내외간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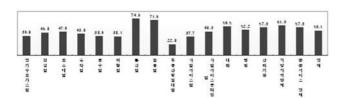
□ 업종의특성에 따라 e-비즈니스 진전 속도 차이 발생했다.

- (업종별)제조업 평균 인텍스 46.1, 비제조업* 평균 인텍스 57.5로 전반적으로 비제조업이 제조업보다 높았으며, 인 텍스 상승률 역시 비제조업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.
 ※ 인텍스 상승률 : 비제조업(1.34 ↑), 제조업(1.11 ↑)
 ※ 비제조업 인텍스는 도소매업/운수업/통신업/금융업/
 - 건설업 평균임
- 또한, 제조업이든 비제조업이든 공정의 자동화 등 IT기 술의 수요가 많은 업종은 지속적으로 e-비즈니스가 진 전되고 있으나
 - 노동집약적 영세업종이나 고객과의 직접 접촉의 편의
 성이 높은 업종은 e비즈니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
 부족하다.
 - ※ 인텍스 상위업종 : 제조업[석유코크스(59.3), 기타운송 (58.1), 전자부품(50.0)] 비제조업[통신업(74.6), 금융 업(71.6)]
 - ※ 인텍스 하위업종 : 제조업[가구및기타(31.0), 재생용가 공(20.0)], 비제조업[부동산임대업(22.8)]

〈제조업 업종별 인덱스 현황('06년)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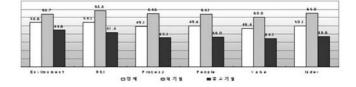


〈 '비제조업 업종별 인덱스 현황(' 06년)〉



미 대중소기업 e-비즈니스 수준 격차 확대

- (기업규모별)대기업(65.0)과 중소기업(36.6)간 인텍스 격 차는 28.4로 그 중 프로세스 분야의 격차(29.5)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.
 - ※ 대/중소기업 분야별 인텍스격차 : 환경(19.1), 자원과 인프라(26.9), 프로세스(29.5), 인력(28.1), 가치(25.9)



- 전년도 동일 조사대상 대중소기업 비교시 인텍스 격차가 '05년 14.3에서 '06년 15.4로 더욱 확대되었으며, 이는 대기업의 6비즈니스 수준이 중소기업보다 빠르게 진전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.
 - ※ 대중소기업 격차 확대 주요업종 : 제조업[전기기계 (8.8), 1차금속(7.7)], 비제조업[도소매업(15.8), 운수업 (13.3)]
 - ※ 대중소기업 격차 축소 주요업종 : 제조업[기계장비(△ 7.8), 비금속(△7.4)], 비제조업[여행업(△14.6)]
- 대·중소기업 인덱스 격차 증기는 e-비즈니스분야에서도
 양극화가 진행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에는 중소기업의
 e-비즈니스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.
- 산업자원부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향후에도 국내외
 e-비즈니스 인덱스를 조사하여 e-비즈니스의 새로운 트
 랜드를 파악하고 정부의 정책수립과 기업의 e-비즈니스
 투자를 위한 객관적이고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할
 계획이다.
 - ※ 2006년 인텍스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전자 거래진흥원에서 조사기업을 중심으로 책자로 배포할 예정이다.